

미국 청소년의 독서행태 및 환경에 관한 고찰

A Research on the Reading Behavior and Environment of the Teens in the U.S.A.

윤 정 옥(Cheong-Ok Yoon)*

목 차

- | | |
|----------------------|--------------|
| 1. 머리말 | 3.1 가정의 독서환경 |
| 2. 미국 청소년의 독서실태 | 3.2 학교의 독서환경 |
| 2.1 미국 청소년의 일반적 독서실태 | 3.3 사회적 독서환경 |
| 2.2 독서와 학업성취도 | 4. 맺음말 |
| 3. 미국 청소년의 독서환경 |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 청소년의 독서행태 및 학교 안팎의 독서환경의 특성에 대하여 분석 및 기술하는 것이다. 먼저 미국, 영국 및 아일랜드 청소년의 독서행태에 관한 주요한 연구 및 각종 통계보고서들을 검토하고, 가정의 독서환경,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학교 독서환경 및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독서환경을 기술하였다. 1950년대 이후 학교도서관의 비약적 확산과 공공도서관 청소년서비스의 발전을 가져온 미국의 사례는 점점 감소하는 청소년 독서율의 제고 및 독서환경의 조성에 국가, 학교, 사회, 가정이 협력해야 함을 보여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and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reading environment for the teens and their reading behavior in the U.S.A. Some researches and statistics on the reading behavior of young students in the U.S.A., the U.K. and Ireland were examined, and the reading environments for the teens in society and at schools and home were described. The development of school media centers since the 1950s and services for young adults in public libraries in the U.S.A. confirms that government, school, society and home should altogether cooperate in order to help students read more and build better reading environment for the teens.

키워드: 미국 청소년, 독서행태, 독서환경,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The Teens in the U.S.A., Reading Behavior, Reading Environment, School Media Centers, Public Library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 전공교수(jade@cju.ac.kr)

논문접수일자: 2008년 10월 19일 최초심사일자: 2008년 10월 28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11월 30일

1. 머리말

청소년기는 보통 십대를 말하며,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대부분 많은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변화를 겪게 되고, 특히 독서와 관련된 측면에서는 평생의 독서습관의 기초를 만드는 시기라고 인정된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자신의 독서기호를 발전시키고 책, 정보를 담은 기사, 시, 희곡, 스토리와 소설 등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를 읽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들은 여러 주제와 유형의 글을 보다 폭넓게 읽음으로써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돕기 위하여 독서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미국 교육부는 이러한 청소년기에 독서능력과 습관을 지속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학교와 집에서 계속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OCO 2005).

1950년대 초반부터 미국 연방정부는 교육개혁과 더불어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의 독서 및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재정적 투자를 해왔고(Michie and Holton 2005), 지역사회에서는 공공도서관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적, 문화적 성장을 돕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이런 노력의 성과로서 2003-2004 학사연도에 미국 전역의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78,257개의 학교도서관이 있고, 지역사회에는 2005년 당시 9,198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었다(NCES 2007). 이와 같은 학교 및 공공도서관의 분포는 미국이 OECD 회원국가들 가운데 최상위권에 위치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런 만큼 미국 청소년의 독서환경

이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서도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7년 발표된 미국청소년의 독서 실태에 관한 보고서는 이들의 독서율이 매우 낮음을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NEA 2007).

학교나 공공도서관의 수치로만 보아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미국의 청소년들이 독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나라의 청소년들은 얼마나 더 독서하기 어려울 것인가 하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청소년의 독서는 단순히 학교나 공공도서관의 존재 여부만이 아니라, 이들의 주요한 당면과제 가운데 하나인 자아와 신체의 성장,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대한 관심, 독서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가치관, 부모나 또래의 인식과 태도, 독서 및 교육 정책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교육부나 지역사회가 그 같은 요인들의 복합적 영향을 논하기에 앞서, 청소년 주위의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의 존재에 관심을 두는 이유도 국가나 사회가 나서서 모든 청소년을 위해 이 도서관들을 중심으로 하여 적정하고 평등한 수준의 공적 독서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청소년의 독서환경 조성을 단순히 가정이나 개인의 책임으로만 맡겨두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1.1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 청소년의 독서실태를 살펴보고, 그들을 둘러싼 가정의 독서환경,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학교 독서환경 및 공

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독서환경의 현황을 기술(記述)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청소년의 독서 및 도서관에 관련하여 미국 정부나 민간 단체가 수행한 연구 및 각종 통계보고서 등 문헌 및 웹자료를 분석하였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국, 아일랜드 등 다른 나라의 관련 사례도 비교하기 위하여 살펴보았다.

2. 미국 청소년의 독서실태

2.1 미국 청소년의 일반적 독서실태

미국교육부의 국립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및 민간에서 수행한 주요한 연구들은 미국 청소년의 독서시간 혹은 학교 안팎 생활에서 독서의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고하고 있다.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이하 NEA라 부름)는 미국 청소년의 독서행태에 관한 포괄적 보고서를 통해 십대들 사이에 자발적으로 독서하는 비율이 “역사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십대 후반 연령층들의 독서능력이 점차 악화되어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십대 후반은 나이가 더 어린 집단보다 재미로 책을 읽는 경우가 더 적고, 독서성향과 성취수준에서 남녀 간 격차가 크며, 여가 독서 및 독해 수준이 높은 것이 더 나은 학업, 직업 및 사회적 혜택을 누리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NEA 2007, 21).

2.1.1 독서율의 전반적 하락 추세

미국의 청소년들의 독서율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국립교육통계센터가 미국의 12학년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조사한 결과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2학년 학생들 가운데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 책, 잡지 혹은 신문을 읽는 학생들의 비율은 1979년 이래 계속해서 감소하였다. 1979년 12학년 학생의 84.7%가 독서를 했다고 대답하였으나, 1985년에는 81.2%, 1995년에는 77.0%, 그리고 2001년에는 72.4%만이 독서를 했다고 하였다(Fox, Connolly, and Snyder 2005, 82-83). 12학년 학생들 가운데 학교와 관련되지 않은 책을 일주일에 적어도 세 시간 이상 읽은 학생들의 비율 또한 감소하였다. 2004년에 학교와 관련되지 않은 책을 일주일에 적어도 세 시간 이상 읽은 학생들의 비율은 33.7%였고, 이것은 1992년의 34.8%에 비하여 약간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주중에 하루 세 시간 이상 텔레비전을 시청한 12학년의 비율은 1992년 8.6%에서 2004년 30.6%로, 주중에 하루 세 시간 이상 비디오나 컴퓨터 게임을 한 학생들의 비율은 1992년 2.1%에서 2004년 6.3%로 늘어난 것(NCES 2007, Table 146)과 비교하면 독서율의 상대적인 감소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 청소년들의 독서행태는 다른 나라 청소년들과 그리 다르지는 않다. 2003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MORI가 영국과 웨일즈 지방의 33개 학교에 재학 중인 914명의 11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들의 83%는 여가 시간에 책을 읽지만, 11%는 학교 시간 외에는

전혀 책을 읽지 않았다. 또한 전혀 독서하지 않는 남학생의 비율(16%)이 여학생보다(7%) 훨씬 높았고, 남학생들과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독서를 즐기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았다. 청소년의 26%는 독서가 “지루하다”고 하였고, 70%는 책을 읽기보다는 TV나 DVD를 시청하기를 더 좋아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13세-14세가 독서에 관한 흥미가 감소하는 “핵심적 연령(the key age)”인 것으로 나타났다(MORI 2003).

영국의 National Literacy Trust가 2005년 영국의 98개 초·중등학교의 8,0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비슷했다. 이 서베이는 영국정부가 지원하는 범국가적 독서진흥활동인 “National Reading Campaign” 이니셔티브의 “Reading Connects”를 위해 수행되었다. 이 서베이에 따르면 학생들 가운데 38.1%는 학교 밖에서 매일 혹은 거의 매일 책을 읽었고, 일주일에 한두 차례는 31.7%, 한 달에 한두 차례는 14.7%였다. 그러나 전혀 혹은 거의 안 읽는다고 한 학생들은 15.4%에 달했다(Clark and Foster 2005, 19). 결국 전반적인 독서율의 하락은 미국 청소년들에게만 나타나는 고유한 현상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2.1.2 독서율의 연령별 차이

미국의 청소년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책을 안 읽는 것으로 보였다. 십대에서도 더 어릴수록 책을 많이 읽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표 1〉¹⁾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4년부터 2004년 사이에 9세, 13세, 17세 연령층을 조사한 결과는 재미로 전혀 혹은 거의 책을 읽지 않는 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7세 연령층에서 재미로 책을 읽지 않는 학생들의 비율은 지난 이십 년 사이에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 이들이 학업 혹은 숙제를 위해 책을 읽기는 하지만, 그 분량은 지난 이십 년 동안 변동이 없었으며, 학생들의 62%가 매일 15 페이지 이하를 읽는 정도였다 (NEA 2007, 7).

또한 〈표 2〉는 1984년부터 2004년 사이에 9세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더 많이 거의 매일 책을 읽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비율은 1984년과 1994년 사이에 증가하다가, 1999년에 다소 감소하였고, 2004년에는 변동이 없었으나, 13세나 17세 연령층보다 계속해서 훨씬 높았다. 그런 반면에 13세 연령층에서 거의 매일 책을 읽는 학생들의 비율은 1984년부터 1999년 사이에 계속 감소하였고, 2004년에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17세 연령층에서

〈표 1〉 재미로 거의 혹은 전혀 책을 읽지 않는 학생들의 연도별 비율

연도	1984년	1994년	2004년	변동
9세	8.9%	9.0%	-	-
13세	8.5%	11.8%	13%	+4.5%
17세	8.7%	11.7%	19%	+10.3%

1) 〈표 1〉과 〈표 2〉는 NEA, 2007. 전계 보고서와 NCES, 1998. “Reading and Writing Habits of Students”를 참고하여 작성함.

〈표 2〉 재미로 거의 매일 책을 읽는 학생들의 연도별 비율

연도	1984	1994	1999	2004
9세	53.3%	57.6%	54%	54%
13세	35.1%	31.9%	28%	30%
17세	30.8%	29.7%	25%	22%

는 계속해서 감소하기만 하였다. 이처럼 거의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 두 차례 책을 읽는다고 한 청소년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거의 혹은 전혀 안 읽는다는 청소년은 도리어 늘어나는 추세였다. 13세 연령층에서 거의 혹은 전혀 책을 안 읽는다는 학생들은 같은 기간 동안 1984년 8.5%에서 1994년에는 11.8%로 늘어났다. 17세 연령층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매일 읽는 학생들은 30.8%에서 29.7%로 줄어들었지만, 거의 혹은 전혀 안 읽는 학생들은 8.7%에서 11.7%로 늘어났다. 일주일에 한 두 차례 읽는다고 한 학생들도 역시 13세 층에서 35.1%에서 32.4%로, 17세 층에서 33.5%에서 31.4%로 각각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NCES 1998; NEA 2007, 8).

청소년들이 나이가 들수록 책을 읽지 않는다는 사실은 미국만이 아니라 2001년 가을, 아일랜드의 “In Children’s Books Ireland”가 수행한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이 연구는 아일랜드 남북부 전역에서 어린이들의 여가용 독서선택에 관한 최초의 대규모 포괄적 서베이로 수행되었는데, 도시와 농촌의 62개 학교에서 7세부터 16세 사이의 2,200여 어린이들을 조사한 결

과는 나이가 더 적은 어린이들이 청소년보다 더 독서를 즐겼고, 나이가 들면서 독서량은 매우 현저하게 감소함을 보여주었다. 연령과 성별로 나누어 보면,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었고, 그 다음은 초등학교 남학생, 중학교 여학생, 중학교 남학생 순이었다. 한편 중학생 연령층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읽었지만, 연령에 따른 독서량의 감소폭은 남학생보다 더 컸다.²⁾

한편 미국의 청소년은 십대 이외의 다른 연령층과 비교할 때도 독서에 소비하는 시간이 매우 적었다. 십대와 청년들(15-24세)은 자발적 독서에 매일 7-10분 정도를 소비하며, 이들이 미국 성인 전체의 평균 독서시간 20-26분보다 60%나 적은 시간을 투입함을 보여준다.

〈표 3〉은 흥미롭게도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주중에 매일 혹은 주말에 독서에 소비하는 시간이 점점 증가함을 보여준다. 그런 반면에 이들 십대와 청년들은 매일 TV를 시청하는 데 2시간 내지 2.5시간을 소비함으로써, TV 시청에 가장 많은 여가시간을 할애하였다. 실제로 TV 시청은 모든 연령대의 남자와 여자가 가장 많은 여가시간을 소비하는 활동이었다(NEA 2007, 10).

2) U.K. National Literacy Trust. 2008. “Reading Attitudes: Children and Young People Reports, Reviews, etc.”에 수록된 “What’s the Story: the Reading Choices of Young People in Ireland.” Report published by Children’s Books Ireland, June 2002에서 발췌한 내용임.
 〈http://www.literacytrust.org.uk/research/Readattitudechildreviews.html〉. [online] [cited 2008.10.17].

〈표 3〉 2006년 연령별 평균 독서시간

연령층	주 중	주말/휴일
15세 이상 평균	20분	26분
15-24세	7분	10분
25-34세	9분	11분
35-44세	12분	16분
45-54세	17분	24분
55-64세	30분	39분
65세 이상	50분	67분

2.1.3 독서의 내용과 몰입

미국 청소년들은 대체로 책을 읽는 동시에 다른 일들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독서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multitasking)”은 텍스트에 덜 몰입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2003-2004년에 7학년부터 12학년을 조사한 연구는 이들의 58%가 독서하는 동안 대부분(28%) 혹은 어느 정도(30%) 다른 매체를 이용한다고 하였다. 거의(26%) 혹은 전혀(16%) 그러지 않는다고 한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수였다. 이들은 독서하면서 TV를 시청하거나(11%), 음악을 들었다(10%). 또한 컴퓨터에서 숙제를 하거나, 비디오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을 하고, 다른 용도로 컴퓨터를 사용하든지, 메신저를 사용하며, 이메일을 하기도 하며, 웹사이트를 서핑 하였다(NEA 2007, 11).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은 영국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보였다. 이를테면, 열 명 중에 세 명은 책을 읽으면서 음악을 들었고, 여덟 명 중에 한 명은 TV 앞에서 책을 읽었다. 이러한 행동은 연령, 성별과 인종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여, 특히 여학생 및 15세 이상의 학생들이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을 가능성이 높았고, 흑인 및 소수민족 학생들이 TV

앞에서 책을 읽을 가능성이 높았다(MORI 2003, 7). 단지 미국과 영국 청소년의 경우만을 비교하면서 살펴보았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성인 “집중의 어려움”은 어쩌면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하겠다.

미국 청소년들이 집과 학교에서 읽는 책의 유형은 달랐다. 1994년에 학생들이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최근에 읽었다고 한 책들 가운데 과학, 사회과학과 수학책은 집보다 학교에서 더 많이 읽었고, 잡지는 학교보다는 집에서 많이 읽었다. 9세와 13세 연령층은 스토리를 집에서 더 읽었고, 17세 학생들은 스토리를 학교에서 더 읽었다. 이들이 집에서 읽는 것은 연령층별로 약간 달랐다. 13세 연령층은 스토리/소설을 가장 많이 읽었고(40.5%) 그 다음이 잡지(35.6%)였던 반면에, 17세 연령층은 잡지를 가장 많이 읽었고(38.9%) 그 다음이 잡지였다(30.3%). 그 다음으로는 둘 다 신문을 읽는 비율이 높았지만(11.5%, 20.7%), 그 밖에 희곡, 시, 과학책, 사회과학책 등을 읽는 비율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독서와 학업성취도

독서빈도는 읽기능력과 긍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읽기능력은 학업성취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최근 수행된 미국의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읽기능력이 낮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아지고,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학교중퇴율, 청소년 비행 가담율 및 구직실패율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NASBE 2006, 4). 결국 독서에서 시작된 읽기능력, 그리고 학업성취도의 연쇄적 관계가 사회적 적응과 성공에까지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먼저 독서빈도와 읽기능력의 관계는 1994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재미로(for fun)” 책을 읽는다고 한 학생들은 9세, 13세, 17세 연령층에서 모두 전혀 혹은 거의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한 동년배의 학생들보다 더 높은 평균 읽기능력 점수를 보여주었던 것에서 볼 수 있다(NCES 1998). 13세와 17세 학생들 모두 재미로 책을 읽는 빈도가 높을수록 읽기점수가 높았다. 매일 재미로 책을 읽는 13세 학생들의 읽기점수는 평균 272점으로 일주일(261점) 혹은 한 달(256점)에 한번 읽는 학생들보다 높았고, 전혀 읽지 않는다고 한 학생들(236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동일한 양상은 17세 학생들에게도 나타났다. 매일 책을 읽는 학생들의 읽기점수는 평균 305점으로 일주일에 한번(288점), 한 달에 한 번(287점) 혹은 한 해에 한 번(272점) 책을 읽는 학생들보다, 그리고 전혀 읽지 않는다고 한 학생들(268점)보다 높았다(NCES 2007, Table 114).

또한 2004년 학생들이 독서와 숙제에 소비

하는 시간과 이들의 읽기점수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숙제가 없거나 숙제가 있어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학생들은 13세와 17세 연령층 모두에서 가장 낮은 읽기점수를 얻었고, 한 시간 미만 혹은 1-2시간 소비하는 학생들이 차례로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두 시간 이상 숙제를 하는 학생들이 가장 좋은 읽기점수를 얻었다(Fox, Connolly and Snyder 2005, Indicator 13). 즉 방과 후 숙제에 투입하는 시간 및 학교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책을 읽는 시간이 많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은 읽기점수를 얻었다.

가정에 얼마만큼의 “읽을거리(reading materials)”가 있는가도 읽기점수에 영향을 미쳤다. 1996년 13세와 17세 연령층을 조사하면서 읽을 거리는 신문, 잡지, 25권 이상의 책, 백과사전의 4가지로 정의하였는데, 두 연령층 모두 집에 4가지 읽을거리가 있는 학생들이 3가지 있는 학생들보다 읽기점수가 높았고, 또한 3가지 미만의 읽을거리가 있는 학생들은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NCES 1996, Indicator 33).

읽기능력이 모자라는 중고등학생들은 상급 교과목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필요한 폭넓은 리터러시 능력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심각한 사회적, 감정적, 경제적 문제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학생들의 인종, 민족, 경제적 수준에 따른 읽기능력의 격차가 지속됨에 따라(NASBE 2006, 4) 학교 안팎에서 이들의 읽기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을 더욱 절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청소년의 읽기능력이 그들이 재미로 책을 읽는 빈도에 정비례하고, 집에 얼마만큼의 읽을거리가 있는가에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이제는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실 바깥에서 특히 가정에서도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 관련된 여가활동으로서 독서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큼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의 교육정책 결정자들은 어린이들에게는 일찍부터 읽기능력을 길러주고, 특히 청소년을 위해서는 부모, 가족, 보호자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으로 하여금 책을 읽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그들에게 적합한 수준의 많은 읽을거리를 마련해주고, 도서관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며, 부모 자신이 책을 읽는 역할모델이 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부모나 보호자가 어떻게 독서를 도울 수 있을지 교사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닐 경우 얻을 수 있는 주변의 도움을 구하며, 독서에 문제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도움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OCO 2005, 56-58).

3. 미국 청소년의 독서환경

3.1 가정의 독서환경

3.1.1 독서를 위한 지출

청소년의 독서에 있어서 가정은 책을 읽을 수 있는 물리적 장소로서만이 아니라, 독서에 대한 동기부여와 환경을 제공하는 자극으로서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 가정의 독서환경이 그리 우호적이지 않음은 독서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은 매우 적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2001년 미국 가구의 연평균 지출은 \$39,518로서, 그 가운데 식료비로 \$5,321

(13.5%), 주거비로 \$13,011(32.9%), 교육비로 \$648(1.6%), 담배 및 흡연용품을 위해 \$308(0.8%)를 지출한 한편, '읽을거리(reading materials)'에 대한 지출은 \$141로 전체 지출의 0.3%였다. 한편 세대주가 25세 이하인 가구의 연평균 지출은 \$23,526이었고, 그 가운데 읽을 거리에 대한 지출은 \$60로 0.2%일 뿐이었다(Fox, Connolly, and Snyder 2005, 90-91).

또한 일반적 가정의 '오락'을 위한 지출(recreation spending)'에서도 책에 대한 지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 1990년 오락 지출에서 책 구입은 5.7%, 오디오, 비디오,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지출은 6.0%였던 것에 비하여, 2002년에는 책에 대한 지출은 5.6%로 약간 줄어들었지만, 이들 전자제품에 대한 지출은 24%로 늘어났다. 그리고 1999년 미국의 평균적 어린이는 2.9대의 텔레비전, 1.8대의 VCR, 3.1대의 라디오, 2.1대의 CD 플레이어, 1.4대의 비디오게임플레이어, 및 1대의 컴퓨터가 있는 가정에 살고 있었다(NEA 2004, xii). 이렇게 가정에서 책보다는 전자형 오락 및 여가제품에 대한 지출이 급속히 늘어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는 것은 생활환경에서 책과 독서의 비중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3.1.2 독서환경으로서 가정의 중요성

독서를 위한 물리적 장소로서 가정의 중요성은 미국보다는 영국의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영국의 청소년들 열 명 가운데 일곱 명(68%)이 가장 많이 책을 읽는 장소는 침대라고 하였고,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더 침실에서 독서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던 예에서 볼 수 있

다. 또한 시간으로 볼 때는 “잠자리에 들 무렵 (bedtime)”이 가장 독서를 많이 하는 시간이었다. 학교는 그 다음으로 많이 독서를 하는 장소로서, 64% 정도가 수업의 일부로서 학교에서 책을 읽는다고 하였지만, 쉬는 시간에 책을 읽는 빈도는 훨씬 적었다. 그런 만큼 집에서 여가를 위한 독서를 하는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소년들 가운데 “골수 비독서가(core nonreaders)”가 있어, 11%는 학교 시간 외에는 절대로 책을 읽지 않았고, 4%는 학교에서나 숙제를 하기 위해서도 책을 읽지 않았다. 그런데 이 그룹에 속한 청소년은 공립학교에 다니며, 부모나 보호자가 직업이 없는 가정에 살 가능성이 훨씬 높아, 가정에서의 사회경제적 결핍과 독서에 관한 연관성을 암시하고 있었다 (MORI 2003, 7).

독서 장소로서 가정의 중요성은 영국 National Literacy Trust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침실에서 책을 읽고(73.6%), 그 다음으로는 교실(61.6%)이나 거실(50.1%)에서 읽는다고 응답함으로써 독서를 위한 물리적 장소로서 가정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학생들의 34.8%가 학교도서관에서, 26.9%가 공공도서관에서 독서한다고 한 것에 비교하면 그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Clark and Foster 2007, 20-21, 23).

한편 청소년들의 가정환경에 따른 독서행태의 차이도 있었다. 영국 청소년들 가운데 학교에서 무료 점심 급식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22%가 학교 밖에서는 전혀 혹은 거의 독서하지 않는다고 한 데 비하여, 급식을 받지 않는 학생들은 15%만이 그렇다고 하였다. 또한 전자 집단의 31%가 매일 혹은 거의 매일 독서한

다고 한 데 비하여, 후자 집단의 39%가 그렇다고 한 데서, 가정 형편에 따른 독서행태의 차이가 비교적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Clark and Foster 2007, 67).

특히 학생들 가운데 “열성적 독서가(enthusiastic readers)”와 “마지못한 독서가(reluctant readers)”의 태도에서도 가정의 영향이 드러났다. “열성적 독서가”들은 스스로 독서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 독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학교 밖에서 매일 혹은 거의 매일 책을 읽는 비율이 63%로서 “마지못한 독서가”의 13%가 그렇다고 한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마지못한 독서가”의 28%는 전혀 혹은 거의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열성적 독서가”의 95%는 집에 자신의 책을 가지고 있어, “마지못한 독서가”의 83%보다 더 높았고, 가족 중의 누군가와 책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일이 많았다. 이들의 17%가 매일 혹은 거의 매일 가족과 독서에 대하여 이야기했고, 39%가 일주일에 한 두 번은 이야기했다. 반면에 “마지못한 독서가”들은 4%만이 매일 혹은 거의 매일, 15%가 일주일에 한 두 번은 이야기하였고, 64%는 전혀 혹은 거의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또한 “열성적 독서가”들은 어머니(49.2%)나 아버지(38.5%)가 독서를 “많이(a lot)” 권장하였고, “마지못한 독서가”들은 그 비율이 더 낮았다(어머니, 24.6%; 아버지, 18.6%).

여기에서는 영국의 사례만을 인용하였지만, 이처럼 가정에서 독서 권장, 책과 같은 읽을거리의 존재 여부가 청소년의 독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청소년의 독서력 향상을 위해 가

정의 협력을 촉구하는 데도 타당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3.2 학교의 독서환경

3.2.1 학교도서관의 현황

미국 청소년의 학교 내 독서환경의 핵심에는 학교도서관 혹은 학교도서관미디어센터³⁾가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1950년대부터 꾸준히 학교도서관의 확충을 위해 입법, 재정 및 정책 측면에서 지원해 왔다. 미국은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호 발사에 대응하여 미국교육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958년 ‘국가방위교육법(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연방기금이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65년 의회가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을 통과시키면서 학교도서관에 1억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미국 교육의 현장에서 학교도서관의 위치가 확고해지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미국은 1950년대 초반 이후로 거의 30,000여 개의 새로운 학교도서관을 세우고, 학교도서관 발전과 장서확대를 위한 수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특히 공립초중등학교의 기존도서관들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학교도서관은 이전에 책에 주안점을 두었던 데서 다양한 정보콘텐츠 자원을 제공하도록 변화하였고, 전문사서와 확장된 시설, 장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의 정보기반”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더욱이 ‘초중등교육법’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제정된 교육관련 법이라고 할

수 있는 2001년의 ‘No Child Left Behind Act’의 이니셔티브에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한 리터러시 향상(Improving Literacy through School Libraries Program)’이 포함되고, 2002년에는 ‘백악관 학교도서관회의(White House Conference on School Libraries)’가 열리는 등 오늘날 미국의 학교도서관은 연방정부의 교육입법에서 공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 주제로 논의되고 있다(Mitchie and Holton 2005, 1).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미국의 공립학교는 사립학교보다 학교도서관을 가진 비율이 높다. 2003-2004 학사연도에 미국 전역에서 학교도서관이 있는 공립학교는 모두 78,257개 학교로 이 가운데 중등학교는 16,268개 학교, 초중등 통합학교는 4,586개 학교이다(NCES 2007, 601). 1999-2000 학사연도에 전체 76,807개 공립학교에 학교도서관이 있었던 것에 비하여 증가한 수치이다. 당시 모든 “전통적인 공립학교”(83,824개 학교)의 91.6%에 학교도서관이 있었고, 초등학교의 94.6%, 중등학교의 87.2%, 초중등 통합학교의 85.3%에 도서관이 있었다. 이러한 분포는 공립학교의 재학생 4,500만 명 가운데 4,400만 명(97%)이 학교도서관이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음을 의미한다(NCES 2004, 4). 같은 해 전체 사립학교의 63%에 해당하는 17,054개 학교에 학교도서관이 있었고, 전체 사립학교 재학생 4백만 명 가운데 82%가 도서관이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것에 비교하면, 공교육 현장에서 학교도서관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3) 학교도서관(School Library)은 학교도서관미디어센터(School Library Media Center) 혹은 학교미디어센터(School Media Center)라고도 불리지만 여기에서는 학교도서관이라고 한다.

학교도서관 장서현황을 보면 2003-2004 학사연도에 평균적으로 공립학교 도서관은 학생 백 명 당 1,803권을 소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사립학교 도서관이 1999-2000년에 학생 백 명 당 1,857권을 소장했던 것보다 적어, 장서규모 면에서는 사립학교 도서관이 공립학교 도서관 보다 나은 편이었다. 또한 공립학교들 가운데에서도 중고등학교 도서관의 학생 백 명 당 소장 책은 평균 1,376권으로 초등학교의 2,127권 보다 적었다. 한편 공립중고등학교 도서관의 비디오자료(테이프와 디스크)는 백 명 당 61종, CD-ROM은 42종이었으며, 연간 장서 증가는 책 61.2권, 비디오자료 4.1종, CD-ROM 0.3종으로(NCES 2007, 601), 학교도서관이 책 이외의 다양한 매체로 된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2년 국립교육통계센터의 '교육추적 연구(Education Longitudinal Study)'에서 752개 학교의 10학년 학생표본 15,525명을 서베이한 결과는 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96%에 학교도서관이 있었다. 이 학교도서관들은 대부분 인터넷 접근(96%), PC(94%), VCR(91%), 오디오장비(89%), 자동화된 책 대출 시스템(74%) 등을 갖추고 있었고, 또한 상당수의 도서관들이 참고/서지데이터베이스(88%), 일반기사와 뉴스데이터베이스(82%), 대학과 직업데이터베이스(62%), 학술주제데이터베이스(56%)와 같은 전자자원도 구독하고 있었다(Scott 2004). 이 학교도서관들 가운데 76%가 16,000권 이하의 장서를 갖고 있었지만, 6%는 24,000권 이상의 장서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도서관들(62%)이 다른 도서관들과 상호대차에 참여함

으로써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와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해 주고 있었다. 주로 지역의 공공도서관(43%) 혹은 다른 고등학교 도서관(42%), 대학도서관(31%), 주립도서관(30%), 주내의 다른 고등학교 도서관(25%) 등과 상호대차를 하고 있었다. 도서관들은 전체적으로 매주 평균 280건의 자료를 대출하였고, 이것은 학생 한명 당 매주 한 권의 책이나 자료를 대출하는 것에 해당하였다.

10학년 학생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학교도서관을 이용했다. 이들은 연구보고서(54%), 교내프로젝트(53%), 인터넷 접근(41%), 과제(41%)를 위해 주로 이용했고, 숙제(27%), 학교 밖의 관심거리(21%), 신문이나 잡지읽기(17%), 재미로 책 읽기(17%), 여가로 읽기(16%)를 위해서도 학교도서관을 이용했다. 이들은 또한 학급 혹은 소그룹 단위로 학교도서관을 이용했다. 평균적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두 개 이상의 학급이 함께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였고, 일주일에 열한 번 정도 한 학급이, 학급보다 작은 소그룹이 18번 정도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였다(Scott, 2004. iv, v, 13, 14).

2003-2004 학사연도에 도서관이 있는 공립학교에서 학교 당 평균 도서관 직원 수는 1.8명이었다(NCES 2007, 599). 2002년의 '교육추적 연구'는 학교도서관의 76%가 주에서 인증한 자격증을 가진 전문사서교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서교사들 가운데 18%는 일주일에 한번 이상 영어교사들과 함께 일했고, 17%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 24%는 한 달에 적어도 한번 정도 교사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일반교과과정의 교육에 협력하고 있었다(Scott 2004, 12). 1999-2000년의 통계를 보면 학교도서관이

있는 공립학교 가운데, 고등학교의 52%는 도서관학 석사학위(Master of Library Science, MLS) 혹은 관련학위를 가진 학교사서가 있었다. 이것은 초등학교(39%), 초중등 통합학교(32%)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었고, 학교도서관이 있는 사립고등학교의 43%만이 MLS 혹은 관련학위를 가진 학교사서를 고용한 것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보다 성인 자원봉사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NCES 2004, 3).

학교도서관, 특히 공립학교의 도서관은 방과 후에 도서관을 열어 학생들이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학과 관련 자료 및 취미, 여가, 교양, 정보를 위한 다양한 자원을 이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 PC나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이러한 시설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학교사서는 정규교과 및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 이용은 정규 교과활동의 일부가 되고 있다. 말하자면 미국의 학교도서관은 공공교육이 전국의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혜택 가운데 하나이며, 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핵심적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3.2.2 권장도서목록

미국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 안팎에서 가능한 한 책을 많이 읽게 하려는 노력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 하면 독서와 리터러시 기술이 학생들에게 평생 학습할 수 있는 "비결"이 되며, 더 많이 읽을수록 더 나은 독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입증되어 왔기 때문이다. 학교는 도서관의 시설과 장서를

확충하고, 사서교사가 정규수업과 독서활동을 인도함으로써 학교 안에서의 독서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다양한 읽을거리를 추천하고 독서의 동기를 부여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 가운데 하나는 개별 학교, 학군(District), 혹은 지역이나 주 수준에서 권장도서목록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권하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 어바인시의 어바인고등학교(Irvine High School)는 Harper Lee의 'To Kill a Mockingbird', Zora Neale Hurston의 'Their Eyes Were Watching Gad'과 같은 명작들이 포함된 여름방학 도서목록을 내주고, 개학 후 영어필수1, 영어필수2, 영국문학, 고급영작문 등의 과목에서 평가한다고 하였다(Irvine High School 2008).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 시의 리치몬드 공립학교(Richmond Public Schools, Department of Instruction, Library Media Services)는 여름 동안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을 위한 권장도서목록을 제시하고 적어도 하루에 이십분 이상 책을 읽을 것을 권하고 있다(Richmond Public Schools 2008).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는 주에서 시행한 '영어표준시험(California English-Language Arts Standards Test)'의 점수에 따라 학생들의 독해능력과 관심도에 적합한 권장도서의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이 목록은 캘리포니아 주의 학생 권장 도서 목록으로부터 편성된 것으로 초등(유치원-2학년), 초등상급(3-5학년), 중등(6-8학년) 및 고등(9-12학년)의 흥미단계(Interest Level)로 나누어져 있고, 각 단계에서는 시험점수에 따라 0부터 13+까지의 수준으로 다시 나누어진 13개의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각 단계별 목록

에는 각각 전형적인 연령과 독해수준에 적합한 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세분된 목록에서 학생 개개인의 독해능력과 성취도에 맞추어 책을 골라 읽을 수 있게 하고 있다(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07).

예를 들어, 중학생(Middle School, 6-8)의 가장 낮은 수준 '목록 1'은 46종의 책을 수록하고 있는데, 여기엔 Shel Silverstein의 'A Light in the Attic'(독해수준 초등, 초등상급, 중등), Diane Siebert의 'Mojave'(독해수준 중등) 등의 책들이 들어있다. 가장 높은 수준인 '목록 13+'은 초서의 'The Canterbury Tales', Charles Lamb 등의 'Tales from Shakespeare'(독해수준 중등 및 고등)와 같은 책들을 49종 포함하고 있다. 그 독해 및 관심 수준에 따라 Janet Wong의 'A Suitcase of Seaweeds'(독해수준 초등상급 및 중등)처럼 '목록 1'과 '목록 13+'에 동시에 수록된 책들도 여럿 있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주체들이 작성하는 독서목록은 청소년들에게 읽으라고 "권장"하는 것일 뿐, 대부분 아무런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다. 물론 어바인고등학교처럼 여름방학 과제의 일부로 제시하고 개학 후 평가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독서는 자발적인 행위임을 강조하면서 학교도서관과 같은 시설을 완비함으로써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스스로 독서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사, 학부모, 도서관 및 사회가 돕도록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3 사회적 독서환경

3.3.1 공공도서관의 현황

미국 청소년의 사회적 독서환경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전국의 크고 작은 지역 사회의 어디에나 자리 잡고 있는 공공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수직인 면에서 보면 미국 교육부가 최근 통계로 제시한 2005년 당시 미국 전역에는 9,198개 공공도서관이 있었다. 그 가운데 1,544개 도서관⁴⁾(17%)은 하나 이상의 분관을 갖고 있어 전체 공공도서관 수는 중앙도서관과 분관도서관을 합하여 16,543개에 이르며, 825개의 북모빌도 가동되고 있다(NCES 2007). 2004년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 인구의 97% 정도가 공공도서관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NCES 2006).

공공도서관의 전체 장서현황을 보면 2005년 전국 공공도서관에 모두 8억 1,560만 권의 인쇄자료가 있다. 주 별 평균치는 네바다 주의 일인당 1.6권부터 메인 주의 5.4권에 이르기까지 지역 간에 다소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미국 인구 일인당 2.8권에 해당한다. 공공도서관은 그밖에 4,150만 건의 오디오자료(인구 천명 당 144.9건)와 3,970만 건의 비디오자료(인구 천명 당 138.5건)를 가지고 있으며,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185,179개의 인터넷 터미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인구 오천명 당 3.2개의 터미널을 의미하며, 도서관 한개 당 평균 인터넷 터미널 수는 11.2개에 이른다.

이러한 장서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공도서

4) 예를 들어, 시카고공공도서관(Chicago Public Library), 로스앤젤레스공공도서관(Los Angeles Public Library)과 같이 큰 도시의 공공도서관은 하나의 도서관 체제 아래 칠팔십여 개의 분관도서관을 가지고 있으며, 십여 개의 분관을 가진 도서관들의 수도 매우 많다.

관의 2005년 총 방문 회수는 14억 회로 인구 일인 당 4.7회 방문, 자료의 총 대출 건수는 21억 건으로 인구 일인 당 7.2건의 자료 대출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어린이자료의 대출은 7억 1,640만 건으로 전체 대출의 35%를 차지하였다(NCES 2006). 그러나 청소년자료의 규모나 대출 건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계를 잡고 있지 않았고, 지난 2007년 미국 공공도서관협회(Public Library Association)에서 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특별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나 회원 도서관들에게만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어, 청소년의 최근 이용현황을 바로 알기는 어렵다(PLA 2008).

3.3.2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서비스

미국 전역에 보편화된 교육문화 기반시설인 공공도서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는 일반 시민이나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에 비하면 비교적 늦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까지도 그렇게 잘 제도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많은 공공도서관들이 십대를 위해서 따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았고, 그들이 필요한 대로 어린이 서비스나 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기대하였다. 일부 도서관들은 주로 고등학교 추천도서 목록, 대중적인 얇가본(paperback) 책, 잡지, 팝 음반 등의 자료를 갖춘 소규모 컬렉션을 유지하는 정도였다(Walter 2005).

그러나 2000년대 공공도서관은 청소년 서비스를 강화하고 청소년 전문사서를 배치하며, 지역의 초중등학교 및 학교도서관, 그리고 각종 기관, 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청소년의 독서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

다. 또한 점점 더 청소년의 교육적, 문화적,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며 시민의식과 리더십을 기르는 데까지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청소년의 공공도서관 이용에 대해서는 1994년 중반 수행된 미국교육통계센터의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십여 년 전에 수행되었지만 지금까지 공공도서관 어린이·청소년 서비스와 자원에 대해 가장 포괄적인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 연구에서 어린이 서비스 표본 815개 도서관, 청소년 서비스 표본 800개 도서관을 서베이한 결과를 보면, 1993년 가을 전형적인 일주일에 공공도서관을 찾은 사람들 가운데 60%는 어린이(37%)와 청소년(23%)이었다. 도서관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나이를 정의하는 방식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청소년을 12살부터 18살까지로 볼 때, 도서관들 사이에 청소년 이용자의 분포는 매우 다양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삼분의 일은 청소년이 전체 이용자의 10% 이하였지만, 11%의 도서관에서는 전체 이용자의 40%가 청소년이었다(OERI 1995, 2-4).

당시 공공도서관의 11%가 청소년 장서나 청소년 전용공간이 없었고, 58%만이 청소년 장서를 소장하는 별도의 청소년실이나 전용공간을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 도서관들은 청소년 장서를 일반장서와 통합하거나(15%) 어린이 구역에 통합하고 있었다(16%). 일주일에 이용자가 천 명 이상인 도서관 가운데 65%가 별도의 청소년실이나 공간을 가진 데 비하여, 이용자가 200-999명 사이인 도서관의 57%, 200명 미만인 도서관의 54%가 별도의 청소년실을 가지고 있었다. 대체로 공공도서관의 규모가 크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청소년을 위한 독립적

서비스와 시설공간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커짐을 알 수 있다.

모든 공공도서관들은 청소년 전용공간이나 시설이 있건 없건, 어떤 형태로든 청소년 독자를 위한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청소년을 위해서 주로 마약, 알콜 및 성(性) 정보(97%), 대학과 직업정보(93%), 학습 공간(90%), 정기간행물(89%), 다문화자료(84%), 오디오자료(76%), 비디오자료(75%) 등을 가지고 있었으며, 도서관들의 64%는 영어 외의 언어로 된 청소년 자료도 갖고 있었다. 대부분은 청소년을 위한 참고지원(reference)을 수행하였고(98%), 도서목록, 서지, 혹은 '길잡이(pathfinder)'(74%), 그리고 독서지도 서비스(Reader's advisory)를 제공하였다(73%). 이들은 숙제지원 프로그램(12%) 및 청소년 관심 주제에 대한 발표와 워크숍(33%), 청소년 독서 혹은 영화토론 그룹(12%), 학습지도 프로그램(10%) 등도 운영하였다. 대부분 큰 도서관, 교외 및 도시지역의 도서관 및 청소년 서비스 전문사서가 있는 도서관들이 독서지도 서비스, 도서목록, 숙제지원 프로그램, 컴퓨터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농촌지역 도서관들은 동일한 서비스의 비율이 다소 낮았다. 청소년은 대부분의 도서관 서비스를 비교적 빈번하게 이용하였으나, 가장 인기 있고 널리 이용되는 서비스는 비디오자료, 영화, 책, 참고지원 및 정기간행물 등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이처럼 독서 및 학습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청소년 대상 서비스는 이후 다소 성격이 달라졌고, 점차 보다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이끄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1998년 미국도서관협회가 미국 전역의 1,500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한 1,248개 공공도서관 가운데 99.6%가 전통적인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독서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숙제지원서비스 등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공공도서관의 33.2%가 컴퓨터 클래스/워크숍을 열어 인터넷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웹페이지 디자인 등을 가르쳤는데, 이들의 72.6%가 주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42.2%가 자원봉사, 학습지도 등 지역사회 서비스/리더쉽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이 프로그램들 역시 주요한 대상은 중학생들이었고(82.6%), 고등학생들을 위해서는 직업개발 프로그램(81.6%)과 같은 것들을 진행하였다(OERI 1995, 37, 39, 43, 47).

2000년대의 공공도서관은 청소년에게 독서활동을 권장하는 것만큼이나 시민의식, 리더쉽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기회를 주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도서관이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에 강력하게 등장한 '청소년 성장운동(youth development movement)'의 원칙에 가장 알맞은 지역사회 기관으로 인정됨으로써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운동은 청소년은 "자원(resources)"이며, 이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 도와주는 어른들과의 관계, 의미 있는 활동을 포함하는 지역사회의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공공도서관이 그러한 조건을 가진 대표적인 시설로 인정되었다(Spielberger, Horton, and Michels 2004).

물론 미국에서도 아직도 상당수의 공공도서관이 청소년을 위해 제한된 자원만을 가지고

있고, 그들과 일할 청소년 서비스 전문사서의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청소년들이 공공도서관을 방문하고 있는 이유는 도서관이 숙제를 하고, 컴퓨터를 사용하며, 방과 후에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안전하고 편안하며 적절한 공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은 인쇄 및 디지털자원을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원에 대한 전문가의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적, 교육적, 사회적 중심 역할을 하는 “다면적 기관(multifaceted institutions)”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공적 재원으로 지원되는 기관으로서 거의 모든 지역사회에 있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이 “생산적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직업개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유망한 자원”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대를 바탕으로 월러스재단(Wallace Foundation)은 1999년부터 “공공도서관을 청소년 성장의 파트너로(The Public Libraries as Partners in Youth Development Initiative, PLPYD)”라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뉴욕 주 브룩클린 시의 브룩클린 공공도서관, 메릴랜드 주 발티모어 시의 이노크프랏 공공도서관, 캘리포니아 주의 오클랜드 시의 오클랜드 공공도서관 등 9개 공공도서관에 3년간 40만 달러씩의 기금을 지원하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였다(Spielberger, Horton, and Michels 2004).

3.3.3 공공 및 학교도서관의 청소년 독서 지원 활동

미국도서관협회가 전국의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청소년을 위해 진행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2003년부터 ‘미국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의 파트너로서 진행하는 “We the People: Bookshelf”를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 학습 및 이해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매년 한 가지 주제에 관한 열일곱 권의 책, 포스터, 책갈피 및 장서표, “상자 속 역사(History in a Box)”라는 역사 학습자료 등을 도서관들에 나누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모두 9,000여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이 “Bookshelf”를 나누어주었으며, 2007년에는 “평등하게 태어남(Created Equal)”이라는 주제로 링컨 대통령에 관한 자료 등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의 각 수준에 알맞은 책들을 담은 “Bookshelf”를 모두 3,000개의 공공 및 학교도서관에 전달하였다(ALA 2008b).

미국도서관협회는 또한 분회(Division)인 청소년도서관서비스협회(Young Adult Library Services Association)와 함께 “The Great Stories CLUB”라는 청소년 독서토론클럽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유명한 방송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의 ‘Oprah’s Angel Network’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The Great Stories CLUB”이라는 이름에서 CLUB은 “도서관, 불우청소년과 책을 연결함(Connecting Libraries, Underserved teens and Books)”을 의미하는 두문자이다. 이 독서운동은 불우하고 문제가 있는 십대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관

런 있는 책을 읽고, 동년배 집단과 함께 각 책에 대하여 생각하고 토론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The Great Stories CLUB”은 독서가 “즐거움의 원천이며, 자아발견의 도구가 되고, 보다 넓은 바깥세상과 연결하는 의미 있는 방법”임을 청소년에게 보여주며, 궁극적으로는 이들로 하여금 “독서의 힘(the power of reading)”을 깨달음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ALA 2008a).

청소년도서관서비스협회는 1998년부터 매년 10월 세 번째 주에 “Teen Read Week!”이라는 전국적 규모의 청소년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Teen Read Week!”의 중심 주제는 “재미로 책읽기(Read For The Fun of It)”이며, 매년 새로운 하부주제를 정하여 학교,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및 서점들로 하여금 그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고 있다. 2008년의 하부주제는 “Books with Bite @ Your Library®”로서 청소년들이 “무는(bite)” 흡혈귀 이야기부터 “씹어 먹는(bite)” 요리, 및 “byte와 관련된” 기술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책들을 읽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Teen Read Week!”에는 매년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 사서, 교사, 서점 및 그 밖의 관심 있는 어른들의 참여가 늘어가고 있는데, 2007년에는 전국에서 4,800여 학교 및 공공도서관이 참여하였다. “Teen Read Week!”은 여러 출판사, 기관, 단체, 기업들의 재정 및 행사 후원을 받으며, 2008년 행사를 위해서도 미국학교행정가협회, 미국서점협회, 미국중등학교교장협회, 전국영어교사위원회, 전국교육협회, 전국학교위원회협회, 국제독서협회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청소년도서관서비스협회는 그밖에도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방향(1976)”, “청소년에게 최상의 것들: 청소년전문사서의 소양(1981)”, “학교 및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참여 매뉴얼(1981)”, “도서관의 청소년 참여: 훈련 매뉴얼(1989)”, “십대 임신 위기: 도서관의 도움(1989)” 등 다양한 간행물을 통해 청소년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 각종 주제의 추천도서목록을 펴내고 있다. 또한 매년 “청소년용 최우수 도서(Best Books for Young Adults)”, “Quick Picks(Reluctant Reader Booklist. 마지못해 책을 읽는 청소년을 위한 목록)”와 청소년을 위한 “선정 영화(Selected Films)” 목록을 만들고 있다.

미국도서관협회의 또 다른 분회인 공공도서관협회(Public Library Association)와 학교도서관사서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AASL)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장서, 시설, 서비스 및 전문사서의 발전을 통해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 학교도서관사서협회는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표준(2007)”(AASL 2008)을 선언하고, “독서가 세계를 향한 창”이며 “학교도서관이 학습기술 개발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사서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학교도서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4. 맺음말

미국의 청소년들은 적어도 도서관에 관한

한, 학교 안팎에서 비교적 풍부한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을 적절한 시설, 장서 및 전문사서교사를 갖춘 공교육의 핵심기반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2000년대에는 거의 모든 공립학교에 학교도서관이 있게 되었다. 이들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매년 새로운 자료의 구입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학교도서관의 수적 혹은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수준의 강화에 초점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전역의 공공도서관은 학교도서관과 협력하여 학습, 독서 및 여가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적, 감정적 지원을 하는 과정에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IMLS 2008, 3-4).

이처럼 학교와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들이 있고, 정규 교과과목 및 도서관의 활동 등을 통해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청소년의 독서율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 주요한 이유로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의 확산, 각종 전자형 오락매체의 보편화, 다양한 학과외 활동의 참여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정신적, 신체적 성장의 과도기 혹은 격동기에 놓인 이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미국만이 아니라 이른바 “정보혁명”이 휘몰아친 세계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더 많이, 더 잘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 미국 정부, 학교, 가정과 사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독서가 청소년들의 기본적 읽기능력 및 전반적인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평생 학습할 수 있는 소양의 기초가 되며, 생산적이며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됨을 인정한다. 따라서 개인의 독서력 향상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들이 학교 안팎에서 독서할 수 있도록, 누구든 평등하게 이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교육·문화·사회 기반시설로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둔다. 이들 공공시설은 미국사회에 지금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사회계층 간, 인종 간, 지역(예를 들어, 도시와 농촌, 도심과 교외 등) 간 격차를 줄일 수 있고, 특히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얻기 어려운 독서, 학습, 여가활동을 위한 정보자원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공익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제공해 준다는 의미를 가진다.

셋째, 청소년의 일차적 독서환경에서 중심시설인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는 각각 청소년서비스 전문사서와 사서교사라는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지적 성장에 필요한 요구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수준의 장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들이다. 물론 미국도 아직 모든 도서관이 최적 수준의 청소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들은 기본적으로 사서와 사서교사의 전문성이 도서관 서비스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정하

고, 이들의 적정한 충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넷째, 2000년대 초부터 확산된 'One Book, One Community' 혹은 'The Big Read'와 같이 영향력 있는 지역사회 독서운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어른들과 더불어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독서운동은 특히 청소년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의 마을, 도시, 주 등에서 매년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서 선정한 한 권의 책을 읽고 학교, 도서관, 지역문화센터, 청소년센터, 서점 등 곳곳에서 열리는 토론이나 책에 관련된 전시회, 작가와의 만남, 영화 상영, 공연 등 프로그램에도 참여함으로써, 책과 독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분명 미국 사회는 청소년들이 책을 잘 읽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보다 우월한 도서관 환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청소년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대단한 역설일 수도 있다.

지금처럼 모든 학생들에게 고른 혜택을 주려는 목표를 갖는 적정한 수준의 학교도서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미국도 거의 오십년 걸렸다. 공교육이 이러한 환경을 정립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이다. 또한 미국의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에서 그보다 더 오래고 깊은 뿌리를 가졌기에 지금처럼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기반이 있기에 관·민이 협력하여 책을 읽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독서를 권장하고, 가정이 이를 도울 수 있도록 방안을 함께 모색하면서, 그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과 같은 시설이나 환경을 조성해 놓았다고 해도 독서는 결국 개인의 선택이다. 그러나 적어도 청소년들을 위해 기본적 독서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즐거워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8a. "Great Stories CLUB."

<<http://www.ala.org/ala/ppo/programs/currentprograms/greatstories/club.cfm>>. [online] [cited 2008.8.14].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pril 8, 2008b. "NEH, ALA Announce We the People Bookshelf Awards for 3,000 Libraries."

<<http://www.ala.org/ala/pressreleases/2008/april2008/pponeh.cfm>>. [online] [cited 2008.8.14].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9. *Programs for School-Age Youth in Public Libraries: Report of a Survey Conducted for the DeWitt Wallace-Reader's Digest Fund*. Chicago: Office for Research

- and Statistics,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http://ala.org/ala/yalsa/profdev/DeWittWallaceSurvey.pdf>〉. [online] [cited 2008.8.8].
-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2008. "AASL 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
〈<http://www.ala.org/ala/aasl/aaslproftools/learningstandards/standards.cfm>〉. [online] [cited 2008.8.14].
-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07. "California Reading List(CRL)."
〈<http://www.cde.ca.gov/ta/tg/sr/readinglist.asp>〉 [online] [cited 2008.8.11].
- Clark, Christina, and Foster, Amelia. December 2005. "Children's and Young People's Reading Habits and Preferences: The Who, What, What, Why, Where, and When." National Literacy Trust.
〈http://www.literacytrust.org.uk/research/Reading_Connects_survey.pdf〉. [online] [cited 2008.10.17].
- Fox, M.A., Connolly, B.A., and Snyder, T.D. 2005. Youth Indicators 2005: Trends in the Well-Being of American Youth. (NCES 2005-050).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nces.ed.gov/pubs2005/2005050.pdf>〉. [online] [cited 2008.8.6].
-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2008. *Nine to Nineteen: Youth in Museums and Libraries: Engaging America's Youth-A Leadership Initiative of the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Washington, DC.
〈<http://www.imls.gov/pdf/YouthGuide.pdf>〉. [online] [cited 2008.8.5] pp.3-4.
- Irvine High School. 2008. "Summer Reading List: 2008-2009, I.H.S. English Department."
〈<http://www.irvinehigh.org/pdf/08summerreadlist.pdf>〉. [online] [cited 2008.8.11].
- Michie, J.S., and Holton, B.A. 2005a. *America's Public School Libraries: 1953-2000*(NCES 2005-324).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nces.ed.gov/pubs2005/2005324.pdf>〉. [online] [cited 2008.8.5].
- Michie, J.S. and Holton, B.A. 2005b. *Fifty Years of Supporting Children's Learning: A History of Public School Libraries and Federal Legislation From 1953 to 2000*(NCES 2005-311).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nces.ed.gov/pubs2005/2005311/pdf>〉. [online] [cited 2008.8.5].
- MORI. November 2003. "Young People's Attitudes towards Reading." Nestle Family Monitor, Number 17.

- <http://www.ipsos-mori.com/_assets/polls/2003/pdf/nfm17.pdf>. [online] [cited 2008.10.17].
-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oards of Education. July 2006. *Reading at Risk: The State Response to the Crisis in Adolescent Literacy: The Report of the NASBE Study Group on Middle and High School Literacy Groups*. Revised ed. Alexandria, Virginia: NASBE. p.4.
-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ovember 2007. *To Read or Not To Read: A Question of National Consequences*. Research #47. Washington, DC: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June 2004. *Reading at Risk: A Survey of Literary Reading in America* (Research Division Report: 46). Washington, DC: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 Public Library Association. 2008. "Public Library Data Service Statistical Report." <<http://www.pla.org/ala/pla/plapubs/pldsstatreport/pldsstatistical.cfm>>. [online] [cited 2008.8.11].
- Richmond Public Schools. June 2008. "Superintendent's Suggested 2008 Summer Reading List." <<http://richmond.k12.va.us/services/media/readinglists.htm>>. [online] [cited 2008.8.11].
- Scott, L. 2004. *School Library Media Centers: Selected Results from the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of 2002(ELS: 2002)*. (NCES 2005-302).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nces.ed.gov/pubs2005/2005302.pdf>>. [online] [cited 2008.8.11].
- Spielberger, Julie, Horton, Carol, and Michels, Lisa. 2004. *New on the Shelf: Teens in the Library: Summary of Key Findings from the Evaluation of Public Libraries as Partners in Youth Development, A Wallace Foundation Initiative*. (Chapin Hill Discussion Paper). Chicago: Chapin Hill Center for Children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http://www.wallacefoundation.org/NR/rdonlyres/NewontheShelf.pdf>>. p.1 [online] [cited 2008.8.5].
- U.K. National Literacy Trust. December 2005. *Children's and Young People's Reading Habits and Preferences: The Who, What, Why, Where and When: Executive Summary*. <http://www.literacytrust.org.uk/research/Reading_Connects_executivesummary.pdf>. [online] [cited 2008.9.20].
-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Communication and Outreach.(OCO). 2005. *Helping Your Child through Early Adolescence*.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http://www.ed.gov/parents/academic/help/adolescence/adolescence.pdf>>. [online] [cited 2008.8.5].
-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and Improvement. (OERI). August 1995. *Services and Resource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in Public Libraries*. Washington, DC: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U.S. Department of Education. (Statistical Analysis Report. NCES95-357)
<<http://nces.ed.gov/surveys/frss/publications/95357/>>. [online] [cited 2008.8.11].
-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NCES). November 2007. *Public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Fiscal Year 2005*. (NCES 2008-301).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http://nces.ed.gov//pubs2008/2008301.pdf>>. [online] [cited 2008.8.5].
-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August 2006. *Public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Fiscal Year 2004*(NCES 2006-349).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http://nces.ed.gov//pubs2006/2006349.pdf>>. [online] [cited 2008.8.5].
- U.S.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NCES). March 2004. *The Status of Public and Private School Library Media Centers in the United States: 1999-2000*. By Barbara Holton, Yupin Bae, Susan Baldrige, Michelle Brown, and Dan Heffron.(NCES 2004-313).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http://nces.ed.gov//pubs2004/2004313.pdf>>. [online] [cited 2008.8.5].
-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NCES). 1998. "Reading and Writing Habits of Students."
<<http://www.nces.ed.gov/pubs98/98003.pdf>>. [online] [cited 2008.8.5].
-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NCES). 1996. *Youth Indicators 1996: Trends in the Well-Being of American Youth*(NCES 96-027), by Thomas Snyder and Linda Shafer. Washington, DC. "Indicator 33: Reading Proficiency."
<<http://nces.ed.gov/pubs96/96027.pdf>>. [online] [cited 2008.8.5].
- Walter, Virginia A. 2002. "Public Libraries: Partners in Youth Development." 68th IFLA Council and General Conference, August 18-24, 2002.